

정화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의로 배우는 '무명'의 정체

과거 기억이 현재 지배하면 無明

"마음은 본래부터 청정하다. 그런데, 왜 무명(無明)이 일어나는가?"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용수와 함께 보살로 추앙받는 마명(馬明)이 중생들에게 대승에 대한 신심을 일으키게 하려고 쓴 논서다. 따라서 무명의 정체를 묻는 첫 질문은 <기신론>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마명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기신론>은 어렵기만 하다. 30년 넘게 <기신론> 연구에 매달려온 은정희 서울교대 교수도 "한 자 한 자가 암호 같았다"고 고충을 토로할 정도다.  
 11월 26일 오후, 정화스님이 지난해 10월부터 매일 마지막 주 토요일 <기신론>을 강의하는 서울 원남동 연구공동체 '연구공간 수유+너머' 강의실을 찾았다. (02)3673-1125

# <기신론>, 너는 누구냐?

대승경전에서는 '불법의 큰 바다는 오직 신심만이 들어 갈 수 있다'고 했다. 신심이야말로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모체라는 의미다. <기신론>도 예외가 아니다. '믿음'의 강조에 있어 둘 짝 가라면 서운할 정도다.  
 정화 스님은 마음의 본질과 무명에 대한 설명에 앞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말부터 풀어냈다. 마음이 일어나는 곳마다 깨달음의 봉우리가 되니,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승경전에서 '내가 부처라고 하는데, 부처 같지 않다'라고 의심을 갖지요? 그래도 계속 일심(一心)으로 이어가야 해요. 그러면 '내가 진여, 그 자체로 부처의 활동이다'라고 점점 믿어 가는 마음이 생깁니다. 딱 믿는 마음이 생기면, '진여' '생멸' 일체가 부처의 활동이라는 인식 내용이 자리 잡습니다."

<기신론>은 모든 중생들의 본래적인 참모습인 진여심을 나타내는데 그 핵심이 있다. 즉 진여심이 근본바탕이 돼, 이 마음이 일체의 세간과 출세간법을 모두 포섭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 무명(無明)의 정체는?

"마음의 근본 특성에는 염(念·기억)이 없어요. 염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법계가 하나인 것을 통달하지 못해 망념(妄念)이 생깁니다. '망'은 과거의 어떤 것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홀연히' 일어나죠. '홀연히'는 마음이 바로 전 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염이 일어나 그 일어난 마음이 뒤로 이어져 무명이 되는 겁니다."

무명에 대한 정화 스님의 설명이다. 가령 이런 식이다. 무언가를 '인식한다'고 치자. 그런데 만약 한 순간이라도 과거에 기억돼는 영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 그건 다 무명이다. 과거의 기억

마음자리 잘 관찰하면 마음 쉬고 무명 벗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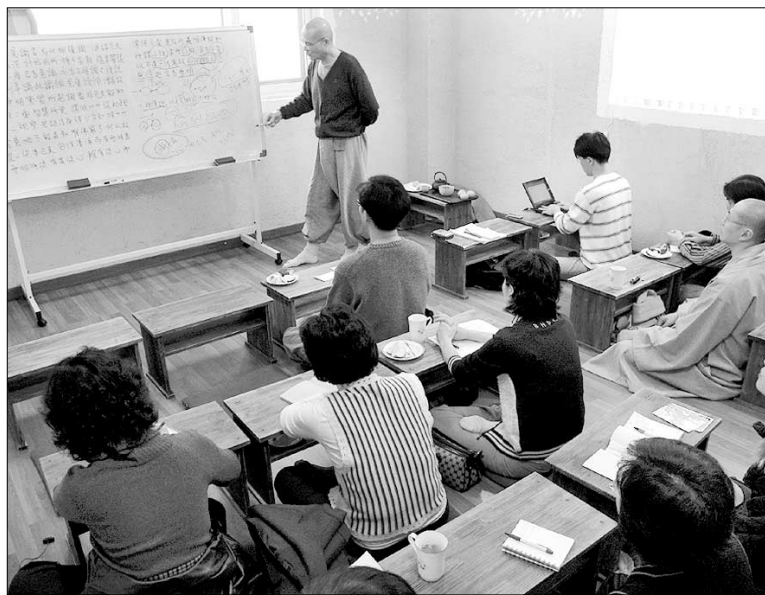
'삼·죽음' '진여·생멸'은 하나... 집착 벗어나라

억과 배경이 현재 순간을 지배하면, 그것 자체가 무명이라는 설명이다.

# 무명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현재 마음자리를 잘 관찰하면, 마음이 쉬게 됩니다. 그러면 늘 작용하는 '무명의 힘'이 줄어들게 되지요. 관찰을 열심히 하면 이 같은 여러식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정화 스님은 이런 어려서움의 원인을 '분리식(分離識) 나눠 인식하려는 인식작용'으로서의 의식에서 찾았다. 영원불변한 도리인 '불생불멸(不生不滅)'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의 변화상인 '생멸(生滅)'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결국, '생멸'에서 '나'란 존재에 집착하게 되고, '항상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리식'이 무명을 키운다는 의미다.

그럼, <기신론>에서는 무엇으로 무명을 끊으라고 할까? 스님은 '한 마음(一心)'에 있다고 강조한다. 일심에 대한 이



정화 스님이 11월26일 서울 원남동 연구공동체 '연구공간 수유+너머'의 강의실에서 <대승기신론>을 강의하고 있다.

해가 무명을 끊어내는 '지혜의 칼'이 된다는 것이다.

"'생멸'을 강조하면, '불생불멸'을 못 본다고 했지요. 그래서 '생멸'만 보면서 고착된 삶을 사는 것을 범부라 합니다. <기신론>에서는 '일심'으로 살라고 누누

오면 의도가 된다고 강조한다.

"마음을 총섭(總攝) 모두 포괄한다'라고 합니다. '심성(心性)'은 인간의 마음을 떠나서 획득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일체 마음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듯, 내 마음이 부처의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되면,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스님은 이어 일심의 일체 활동이 모두 '부처(佛)'라고 설명한다. 이 이치를 적게나마 경험하면 법신을 체득하게 되고, 깨달음의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한다. 즉 부처는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순간순간 깨어있는 상태에서 인식하는 활동이란 의미다. 글·사진=김철우 기자

소장학자에 경전강의 5년째

정화(正和) 스님은 2002년 조계종 기초선원에서 <중론>을, 올해는 <금강경>을 강의한 정화 스님은 30년전, 조계종 중경을 지낸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 도견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고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송광사 해인사 백장암 등에서 10년간을 성만하고, 현재는 제주도에서 전셋집을 얻어 10년 사람을 범부라 하는 겁니다. 사실 한 마음에는 둘이 함께 있습니다."  
 # 밖에서 찾지 말라  
 정화 스님은 '마음이 부처'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한다.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46> 세상에 나오는 엉터리 어록들

7-8년 전 한글번역본 두 권을 내 이름을 달고서 세상에 내놓은 적이 있다. 그 책 원저자인 혜홍각범(惠洪覺範 1071~1128)선사의 <선림보보전>은 처음엔 일백명의 선사행적을 수록했다. 그런데 대혜종교(大慧宗杲 1089~1163)선사가 책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읽고서 그 가운데 19명의 기록을 추려내어 불태워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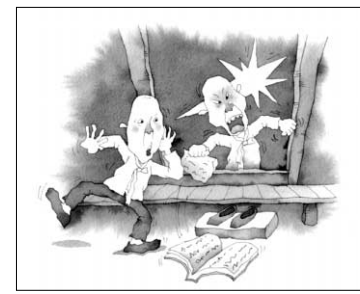
의아하게 생각한 각범 스님은 황벽사의 지(知) 스님에게 편지를 보내 '무슨 이유로 종교 선사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뒷두리를 한다. 하지만 이런 불쾌함을 뒤로 하고 출판할 때는 그 19명을 빼고 책을 냈다. 대혜 스님 안목과 고언을 기꺼이 받아들인 결과다. 이러한 감수사 대해와 저술자 각범의 태도를 높이 평가한 이가 명나라 무은서중(無隱 中 1309~1386) 선사였다.

무은 선사는 직설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한 시대를 같이 사는 승려들에게 내뱉기 쉽

말로 어려서는 자신의 해석을 잘못 붙여놓고 '제 마음대로' '어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의 지적은 모골을 송연하게 만든다. 한 술 더 떠 간행비용을 신도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의 직설은 성역이 없다. 보나마나 이 무리들은 당시의 세력가였을 것이다. 이들을 바로 잡아주어야 할 법상위 않은 큰 어른들까지 그들을 칭찬하고 심지어 어떤 조실은 엉터리 어록에다가 서문과 발문까지 써주고 있다고 당시의 흐름을 탄식하고 있다. 모두가 선문(禪門)에 기친 죄로 인하여 함께 지옥에 떨어질 일이라고 통탄했다.

이처럼 비분강개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드디어 방(棒)을 가져왔이 날릴 기회가 왔다. 소천강 화상의 제자인 휘장주(輝藏主) 스님을 만난 것이다. 휘장주 역시 <금강경>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제멋대로 송(頌)을 붙여 강행 배포한 전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가 무슨 일



간행후 눈밝은 이 만나면 가차없는 평가 따라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귀담아 들을' 이야기

지않은 말을 활줄 알았다. 그는 세상에 나가기를 싫어했고, 행각과 안거로 일관한 삶을 산 까닭에 인정에 깰리지 않고 할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선사는 임제종 양기파 축원묘도(竺元妙道) 선사의 법을 이었다. 선승이면서도 역사적 인물을 가진 시대의 지성이기도 했다. 특히 선사는 안목없이 만연하는 어록의 무차별적 간행에 대해 가차없이 일갈하고 있다.

당시의 대표적 어록 생산자 삼인방으로 사명(四明) 출신 소천강(昭千江) 화상, 천태(天臺)계 원직지(圓直指) 화상, 양주(揚州)사람인 혁후암(契休庵) 화상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이름까지 지목하고 있다. 더 심한 것은 이 세 사람에게 대한 가혹하리만치 냉정한 인물평이다.

그들은 온갖 번뇌에 얽힌 범부에 불과하며 안목없는 머리짜는 외도일 뿐이라고 했다. 함량미달이라는 자질론적 언급인 셈이다. 공부한 바가 없으니 불조화두의 근본 뜻이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면서 현학적인

인지 무슨 선사가 주석하고 있던 동곡사(洞谷寺)에 찾아왔다. 또 새 책을 열렁뿔렁 한 권 만들어 감수라도 받으러 왔는지 모르겠다. 그렇잖아도 버리고 있었는데 제대로 딱 걸렸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어떻게 이 경에다가 제목을 붙였으며, 무엇으로 종지를 삼았는가?"  
 덕담은 고사하고 예기치 못한 서툰발같은 질문에 아연한 휘 화상은 묵묵부답 좌불안석이였다. 덕산 선사가 곁에 있었다면 삼십방이 아니라 몽둥이로 짚질을 했을 것이다.

그러고보니 이전 명나라 시대 이야기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이다. 어떤 어록이건 간행이후 눈 밝은 이들을 만나면 가차없는 평가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팬히 선지(禪旨)도 없는 엉뚱한 소리 어설피게 늘어놓았다가 세세생생 등증기에 식은 땀 흐르는 일 만지지 않는 것도 또한 '불림문자'일 것이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아빠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빠타 센터**  
 아빠타 마스터 김해균  
 전화주시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중랑구 명동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396-2736  
 http://www.avat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tar21.com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정화불상제작전문 성화불교전시관

성화불교미술원 (02)2209-0080  
 성화불교미술원 (031)591-1022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대창빌딩 1층

서울·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화 (02)365-8172  
 팩스 (02)365-8173  
 홈페이지: www.indeenet.co.kr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수독내용  
 공황이 이야기  
 성기가 말을 만들어오  
 땀이 미쳐가고 있어오  
 의처증 이야기  
 바퀴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 이야기  
 성형수술 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 번 결혼한 검사님  
 임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 번 태어난 보일라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 이야기  
 남치는 정체를 추적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경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 (예금주: 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교도수감생활 하시는 분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 374-2번지  
 전화: 062-266-6693